

간호대학생의 사회적거리감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다문화접촉경험의 영향

노윤구¹, 이외선^{2*}

¹국립창원대학교간호학과, ²창신대학교 간호학과

Influence of Multicultural contact Exper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Distance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among Nursing Students.

Noh Yoon Goo¹, Lee Oi Sun^{2*}

¹Department of Nursing,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Changshi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거리감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다문화접촉경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4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 174명이었다. 자료는 SPSS/WIN 23.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Scheffé test, 피어슨상관관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a) 다문화수용성은 사회적거리감과 부적 상관관계($r=-.61, p<.001$)를, 다문화접촉경험과 양적 상관관계($r=.24, p=.002$)가 있었다. (b) 다문화접촉경험과 사회적거리감의 상호작용효과는 다문화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18, p=.003$). (c) 다문화접촉경험은 사회적거리감과 다문화수용성 관계를 조절하였다($\Delta R^2 = 0.30, p=.003$). 본 연구를 통하여 다문화접촉경험이 커질수록 사회적거리감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음의 영향력이 커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수용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적거리감을 줄이고 긍정적인 다문화접촉경험의 접근이 필요하다.

주제어 : 사회적거리감, 다문화접촉경험, 다문화수용성, 간호대학생, 조절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moderated effects of multicultural contact exper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distance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The sample for this study consisted of 174 nursing students from four universities located in Korea.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é test, Pearson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WIN 23.0. It was found that: (a) multicultural acceptability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ocial distance($r=-.61, p<.001$), whereas a posi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with experience of multicultural contact($r=.24, p=.002$); (b) the interaction effect by multicultural contact experience and social distance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beta=-.18, p=.003$); (c) experience of multicultural contact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distance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Delta R^2 = 0.30, p=.003$).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the greater the experience of multicultural contact, the greater the negative effect of social distance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erefore, to increase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nursing students, it is important to encourage the positive experiences of multicultural contact and thus reduce social distance.

Key Words : Social distance, Experience of multicultural contact, Multicultural Acceptability, Nursing students, Moderated effect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in 2017 ~ 2018.

*Corresponding Author : Lee Oi Sun(leeosun@daum.net)

Received November 14, 2017

Revised December 22, 2017

Accepted January 20, 2018

Published January 28, 2018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외국인주민자녀, 유학생 등 외국인주민은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5.11.1기준)』에 따르면, 모두 171만 명이다. 외국인주민 수 조사를 시작한 2006년의 53만 6천명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여 전체 주민등록 인구대비 3.4%로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1]. 이러한 취업, 결혼, 유학 및 의료관광 등 다양한 목적으로 외국인 유입이 증가되는 최근의 추세는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은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함으로써 근골격계 질환과 위장관계 질환을 일상적으로 호소하고, 취약한 모성보호와 산전산후관리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회적응의 어려움 경험과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에 노출되는 등 의료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현실이다[2]. 외국인 환자 통계 조사가 실시된 2009년 외국인 환자는 6만 명에서 2015년 26만6천 명으로 급증하고 있어, 외국인의 의료기관 이용 증가추세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3], 우리나라도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주민 또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시대로 가는 흐름 속에 있음을 보여준다.

다문화 간호는 오늘날 건강관리에서 필수적인 측면으로, 다문화 인구의 증가는 개별적이면서도 총체적인 간호를 제공해야 하는 간호사에게 중요한 도전으로 떠오르고 있다. 간호사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건강관리의 가치, 신념, 습관에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해야 하며, 간호사의 다문화에 대한 역량 있는 간호는 환자들의 만족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4].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간호대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역량은 다문화 대상자들의 건강 문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고[5] 있으므로 다문화 간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적 태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수용성이란 자기 문화와 타 문화에서 적절한 대안적인 마음가짐과 행동들을 모두 포함하는 폭넓은 생활양식으로 문화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다[6]. 다문화 수용성은 다른 문화를 존중하

고 공존할 수 있는 능력이며 다문화 사회의 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인데, 졸업 후 다문화 대상자를 간호하게 될 간호대학생이 간호전문가로서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높은 수준의 다문화 수용성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7]. 간호를 포함하는 의료서비스에서 특정 대상이나 특정 상황에 대한 편견은 치료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8], 미래의 간호를 담당할 간호대학생은 다문화적 간호를 위하여 다문화에 대한 수용적이고 편견 없는 태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거리감이란 서로에 대해 경험하는 이해와 감정의 정도로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감적 이해라고 정의될 수 있다[9]. 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은 다문화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10], 성인한국인에 대한 연구에서도 사회적거리감은 다문화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미치는 변수로 알려져 왔다[11]. 간호사관생도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유지하게 하는 문화적 수용성을 의미하는 다문화주의는 사회적거리감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2]. 사회적 거리감은 개인이 어떤 특성을 가진 집단 및 사람들에 대하여 갖는 주관적인 태도로서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인식수준을 나타내므로[12], 간호대상자에 대한 편견 없는 태도로 갖추기 위하여 간호대학생의 사회적거리감을 규명하는 것은 바람직한 다문화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접촉경험이란 다문화교육이외의 일상생활에서 가족이나 친구, 또는 미디어나 해외여행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다문화를 가진 사람이나 다문화가정을 비형식적으로 접촉한 경험을 말하는 것으로[13],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Allport(1993)는 접촉이론에서 다른 문화나 타국인과 접촉경험이 있는 사람이 접촉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타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며[14], 집단 간 접촉은 집단 간의 편견을 감소시켜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을 돕는다고 하였다[15]. 비형식적인 다문화접촉경험은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16, 17, 18], 다문화사람들과 접촉한 경험을 한 경우 문화적 역량이 높았다[19]. 즉, 다양한 다문화 접촉 경험은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켜 다문화수용성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16-8, 20].

문화적 다양성을 가진 나라로 빠르게 변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고

함께 공존하며 발전적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주류 구성원들이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거리감을 극복하고 다문화에 수용적인 인식과 태도가 필요하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의료 환경에서 편견 없는 간호 제공을 위하여 다문화에 대한 거리감의 극복과 수용적인 태도로 다문화 간호에 대한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10, 21, 22], 대학생[16, 20], 일반인[11, 23, 18]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은 사회적거리감과 관계를 탐색한 것[24]이 있을 뿐 양적인 면에서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다문화 간호를 준비하기 위하여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거리감, 다문화접촉경험, 다문화 수용성 정도를 확인하고 사회적거리감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과정에 다문화접촉경험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확인하며,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간호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거리감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다문화접촉경험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거리감, 다문화접촉경험, 다문화수용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 2) 사회적거리감, 다문화접촉경험, 다문화수용성 정도와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 3) 사회적거리감,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다문화접촉경험의 조절효과를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거리감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다문화접촉경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서술적 인과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2개 도시 4개 간호대학의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편의표집 하였다. 표본수는

통계적 검정력 분석을 위한 최소 표본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Cohen (1988)의 Power analysis 공식에 근거한 G*Power 3.1.7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회귀분석 검정을 위하여 유의수준(α)=.05, 검정력($1-\beta$)=.95, 효과 크기 (ES)=.15로 하였을 때 160명이 제시되어 탈락률을 고려하면 본 연구 대상자수 190명은 필요한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을 고려한 19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84부가 회수되었고(회수율: 96.8%), 불완전한 데이터 10부를 제외한 총 17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사회적거리감

본 연구에서는 Bogardus[9]가 개발한 보가더스의 사회적거리감 척도를 Lee[13]가 대상자를 다문화 배경을 가진 친구로 수정한 8문항으로 구한 점수를 말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사회적거리감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척도의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거리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역문항은 역환산하였다. Lee[13]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93이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821이었다.

2.3.2 다문화접촉경험

Ward[25]가 개발한 비형식적경험 척도(Informal experience)인 다문화접촉경험 척도를 Lee[22]가 변안한 도구를 Lee[13]가 수정한 15문항으로 구한 점수를 말한다. 가족과 친구관계의 직접적인 경험 9문항과 미디어와 해외여행의 간접적인 경험 6문항으로 구성되며, 문항에 '예'는 1점, '아니오'는 0점 처리해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로 총점이 높은 경우 다문화접촉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의미한다. Lee[13]의 연구에서 총 신뢰도는 Cronbach's α =.76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31이었다.

2.3.3 다문화수용성

Min 등[26]이 청소년에 맞게 재구성한 다문화수용성 척도(KMCI-A) 34문항으로 구한 점수를 말한다.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의 3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다문화수용성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척도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

가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역문항은 역환산하였다. Choi의 연구[18]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3$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24$ 이었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연구자와 연구원이 4개 간호대학 간호학과 학과장에게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으며, 연구자가 학생들의 강의실로 찾아가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1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7년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수집하였다. 회수된 응답지 중 누락분 6명과 불성실한 응답을 한 10명을 제외한 174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자료수집 전에 연구자와 연구원이 학생들의 강의실이나 집단회 장소로 찾아가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결과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없으며, 언제든지 자의로 연구 참여를 거부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고 서면설명문으로도 제공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설문지는 연구 참여 동의서와 함께 본 연구자와 연구원이 수거하였다.

2.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회적 거리감, 다문화접촉 경험, 다문화수용성은 기술통계로로 구하였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 다문화접촉 경험, 다문화수용성은 t-test와 ANOVA로 분석하고, Scheffé test로 사후 분석하였다.
- 3) 사회적거리감, 다문화접촉경험, 다문화수용성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4) 사회적 거리감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다문화접촉경험의 조절 효과는 3단계의 위계적 다중 회귀 분석으로 검정하고, 최종모형 비표준화계수에 따라 회귀식을 구성하고 조절변수 크기에 따른 그래프를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특성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특성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1>. 대상자는 대부분 여성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1세였다. 실습과목은 1학기라도 이수한 경우(51.7%)와 이수하지 못한 경우(48.3%)가 비슷하였다. 학년 분포는 2학년(39.1%)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4학년(28.7%)이었다.

<Table 1> Differences in Social distance, Experience of multicultural contact,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174)

Characteristics	n(%)	M±SD	Social distance		Experience of multicultural contact		Multicultural acceptability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Sex	M	18(10.3)	1.76±0.55	0.403	4.94±2.44	-2.156	3.39±0.40	-3.102
	F	156(89.7)	1.71±0.50	(.688)	6.42±2.79	(.032)	3.75±0.48	(.002)
Age (year)	≤20	30(17.2)	1.78±0.56	0.648	6.53±2.18	1.138	3.73±0.50	1.920
	21,22	100(57.5)	1.68±0.48	(.525)	6.43±3.07	(.323)	3.76±0.46	(.150)
	≥23	44(25.3)	1.74±0.54		5.73±2.42		3.59±0.51	
Practicum	Yes	90(51.7)	1.68±0.51	-0.786	6.67±2.91	1.961	3.71±0.51	-0.106
	No	84(48.3)	1.74±0.51	(.433)	5.85±2.59	(.051)	3.72±0.45	(.915)
Grade	First	21(12.1)	1.85±0.54		6.10±2.14		3.68±0.46	
	Second	68(39.1)	1.73±0.55	0.948	5.79±2.75	1.357	3.74±0.47	0.120
	Third	35(20.1)	1.63±0.44	(.419)	6.71±3.04	(.258)	3.73±0.47	(.948)
	Fourth	50(28.7)	1.69±0.48		6.68±2.84		3.69±0.52	

사회적거리감에 차이를 보인 특성은 없었다. 다문화접촉경험에 차이를 보인 특성은 성별($t=-2.125, p=.032$)이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다문화접촉경험이 많았다. 다문화수용성에 차이를 보인 특성은 성별($t=-3.102, p=.002$)이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수용성 점수가 높았다.

3.2 대상자의 사회적거리감, 다문화접촉경험, 다문화수용성의 정도

대상자의 사회적거리감 평균은 5점 만점에 1.71 ± 0.50 점이었으며, 다문화접촉경험의 점수합은 15점 만점에 6.27 ± 2.78 점이었다. 다문화수용성 평균은 5점 만점에 3.72 ± 0.48 점이었다<Table 2>. 사회적거리감이 가장 높은 문항은 ‘다문화배경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여 가족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2.43 ± 0.96)는 문항이었으며 낮은 문항은 ‘같은 동네에 살 수 있다’(1.43 ± 0.63)와 ‘우리나라에서 추방하고 싶다’(1.43 ± 0.79)였다. 다문화경험은 간접경험’(3.74 ± 1.50)이 직접경험(2.53 ± 2.01)보다 점수가 높았다. 다문화수용성의 하위요인 점수는 관계성(3.79 ± 0.53), 보편성(3.70 ± 0.59), 다양성(3.64 ± 0.57) 순이었다.

3.3 변수들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사회적거리감, 다문화접촉경험, 다문화수용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수용성은 사회적거리감과 유의한 부적상관이며($r=-.61, p<.001$), 다문화접촉경험과는 유의한 정적상관이었다($r=.24, p=.002$). 이는 사회적거리감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낮고, 다문화접촉경험이 많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문화접촉경험과 사회적거리감은 유의한 부적상관인데($r=-.17, p=.029$), 이는 다문화접촉경험이 많을수록 사회적거리감이 낮음을 의미한다<Table 2>.

<Table 2> Means and Correlations for Variables (N=174)

Variables	Mean±SD or Sum±SD	Social distance (ρ)	Experience of multicultural contact $r(\rho)$	Multicultural acceptability $r(\rho)$
Social distance	1.71±0.50	1		
Experience of multicultural contact	6.27±2.78	-.17(.029)	1	
Multicultural acceptability	3.72±0.48	-.61(<.001)	.24(.00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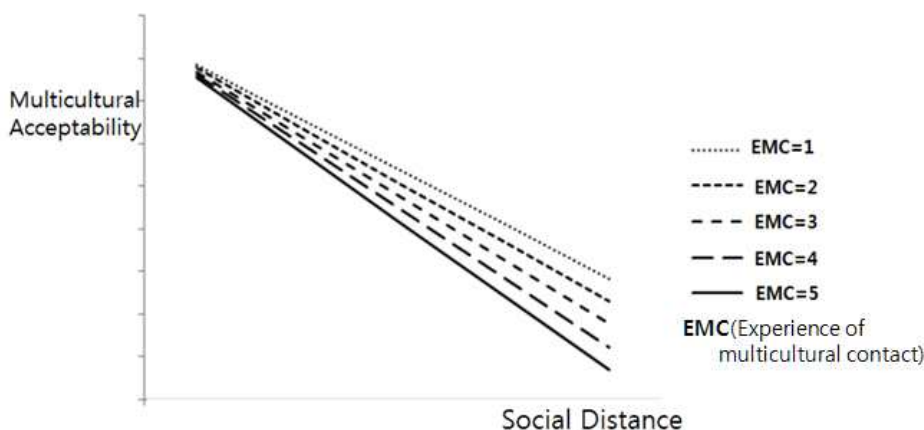
3.4 사회적거리감과 다문화수용성과의 관계에서 다문화접촉경험의 조절효과

사회적거리감과 다문화수용성과의 관계에서 다문화접촉경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 사회적거리감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 독립변수 사회적거리감과 조절변수 다문화접촉경험을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사회적거리감, 조절변수인 다문화접촉경험,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변수를 투입하였다. 상호작용변수와 독립변수, 조절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한 후 상호작용변수를 생성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27]. Durbin Watson 값은 1.57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항 간에 자기상관성이 없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0~1.03으로 10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3단계에서 사회적거리감과 다문화접촉경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때 R제곱 변화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여($\Delta R^2 = 0.30, p=.003$), 다문화접촉경험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3>. 사회적거리감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다문화접촉경험의 조절정도에 따른 그래프는 [Fig. 1]과 같다.

<Table 3> Moderating Effect of Experience of multicultural conta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distance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N=174)

Variables	B	SE	β	t(ρ)	R ²	Additional R ²	F(ρ)
Step 1							
Social distance(A)	-.58	.057	-.61	-10.08(<.001)	.37		101.758(<.001)
Step 2							
Social distance(A)	-.56	.057	-.59	-9.70(<.001)	.39	.02	5.209(.024)
EMC(B)	.02	.010	.14	2.29(.024)			
Step 3							
Social distance(A)	-.56	.056	-.60	-10.04(<.001)	.42	.30	8.909(.003)
EMC(B)	.025	.010	.14	2.41(.017)			
A X B	-.06	.020	-.18	-2.99(.003)			

EMC(Experience of multicultural contact)



[Fig. 1] Moderating Effect of Experience of Multicultural Contact

4. 논의

본 연구에서 사회적거리감 평균은 1.71점(5점 만점)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간호대학생의 평균 2.42점과 2.73점(5점 만점)[13, 24]과 국군간호사관생도의 2.37점(5점 만점으로 환산)[2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사회적거리감 점수 2.07점[10]과 3.42점[13]보다 낮았다. 다문화접촉경험 합은 6.27점(15점 만점)으로 청소년의 다문화접촉경험 합 4.72점[1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은 직접접촉경험(2.53점)보다 간접접촉경험(3.74점)을 많이 하고 있었다. 간접경험에서 미디어를 통한 경험(2.90점 ~ 3.25점)보다 외국 방문의 간접경험(3.18점 ~ 3.46점)이 높은 것은 대학재학 중에 외국여행 기회가 많은 결과라 생각된다. 또한 여학생(6.42점)이 남학생(4.94점)보다 높은 것은 다문화에 대한 접근기회를 여학생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수용성 평균은 3.72점(5점 만점)으로 간호대학생의 3.48점[30]과 사회복지전공대학생의 3.43점[17]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은 선행연구에서의 간호대학생보다 사회적거리감이 낮고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수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사회적거리감이었다. 사회적거리감은 다문화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과 성인 대상의 연구에서 사회적거리감이 다문화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10, 11]에 의해 지지되었다. 또한 사회적거리감이 다문화수용성이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확인한 선행연구[10, 24]는 본 연구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거

리감은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인간관계에서 친근함의 정도를 의미한다[9]. 사회적거리감이 있다는 것은 다문화를 배경으로 가진 사람들을 친구나 가족, 동네주민, 동료학생으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낮은 것을 의미하며, 다문화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수용성이 낮다고 말할 수 있다.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이주민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거리감을 줄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적거리감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다문화접촉경험은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다문화접촉경험이 많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것은 선행연구에 의해 지지되었다[16, 20]. 인종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의 우정은 다문화적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9]. 한편 다문화접촉경험에서 직접 접촉의 형태인 친분, 주거지역 내에서의 접촉, 직업으로 인한 접촉, 공동 목표의 추구, 자선으로 인한 접촉 형태는 편견을 감소시키고 친밀감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14]. 직접접촉경험 뿐 아니라 대중매체나 해외여행경험빈도의 간접접촉경험[18]이 있는 경우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에 따르면 비정형화된 다양한 접촉경험은 주류집단의 외부집단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켜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은 사회적거리감을 낮추고 다양한 다문화 경험으로 다문화간호를 위한 자질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다문화접촉경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거리감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다문화접촉경험은 사회적거리감과 상호작용하여 다문화수용성을 감소시키는 조절효과를 보였다. 조절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은 다문화접촉경험이 많을수록 사회적거리감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의미로, Figure 1과 같이 다문화접촉경험이 증가할수록 사회적거리감과 다문화수용성 사이의 기울기가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다문화접촉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직접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지만, 대상자에게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거리감이 존재하는 경우 사회적거리감과 다문화접촉경험의 상호작용효과는 다문화수용성을 떨어뜨리고 있음을 본 연구는 제시하였다. 사서들의 다문화서비스 경험이 다문화수용성을 감소시키고[23], 부정적인 미디어접촉경험이 다문화수용성을 감소시키는 것[20]은 다문화접촉경험이 항상 다문화수용성과 긍정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서비스 제공에 참여한 경우 이주민들의 지원 물품이나 식사 등에 대한 요구로 다문화이주민에 대한 실망이 누적되는 경우 다문화수용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23]. 미디어는 다문화접촉경험의 주요 통로로서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제공은 다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주지만 부정적인 정보는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즉, 부정적인 경험의 다문화접촉을 하는 경우 오히려 다문화에 대한 거리감으로 다문화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문화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때 대상자들의 사회적거리감을 파악하여 사회적거리감을 감소시키는 접근을 동시에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다문화접촉경험은 사회적거리감에 의한 다문화수용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문화 간호를 위하여 간호대학생은 다문화수용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다문화접촉경험을 포함하는 경우 사회적거리감을 항상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간호교육자들은 다문화접촉경험과 사회적거리감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접촉경험을 장려하고 사회적거리감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다문화접촉경험이 커질수록 사회적거리감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므로 사회적거리

감을 줄이고 긍정적인 다문화접촉경험을 위한 다양한 실천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회적거리감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다문화접촉경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 향상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거리감은 다문화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다문화접촉경험은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거리감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다문화접촉경험은 조절효과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접촉경험의 특성을 확인하고 특성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차이를 확인할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확인하기 위한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다문화수용성 향상을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Status of foreign residents in local governments in 2015, 2016, http://www.moi.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4&nttId=56693, cited 2017 August 10.
- [2] Peoplepower21, Migrant Workers Health and Medical Care, 2014,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224833>, cited 2017 August 10
- [3]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Number of foreign patients and their proportion 2015, 2016, http://210.179.230.152:8083/statHtml/statHtml.do?orgId=358&tblId=DT_358N_F701&conn_path=I3, cited 2017 August 10.
- [4] M. M. Maier-Lorentz, "Transcultural nursing: Its importance in nursing practice". Journal of cultural diversity, Vol. 15, No. 1, pp. 37-43. 2008.
- [5] G. C. Lee, Y. S. Park, H. K. Lee, K. J. Lee. "The Effect of a Convergence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 Program on Cultural Competence and Empathy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2, pp. 337-346, 2015.
- [6] M. R. Hammer, M. J. Bennett, R. Wiseman, "Measur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The intercultural development invento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 27, pp. 421-443, 2003.
- [7] M. J. Chae, J. I. Kim, J. H. Lee, "Effects of a Multicultural Course on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1, No. 3, pp. 373-381, 2015.
- [8] A. Coseo, "Developing cultural awareness for creative arts therapists". *The Arts in Psychotherapy*, Vol. 24, No. 2, pp. 145-157, 1997.
- [9] E. S. Bogardus, "A Social Distance Scale".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Vol. 17, pp. 265-271, 1933.
- [10] S. Y. Park,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Self-Esteem and Social Distance toward Multi-Culture on Acceptability of Multi-Cultu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ju National University, 2015.
- [11] J. H. Lee, K. K. Kim, "Determinants of Korean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Focusing on the effect of educational attainment".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Vol. 22, No. 3, pp. 163-192, 2012.
- [12] K. H. Kang, C. H. Woo, D. H. Chae, "Factors Affecting the Social Distance between Minority Groups and Nursing Cade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0, No. 5, pp. 505-513, 2014.
- [13] S. Y. Lee, "A Sense of Social Distance among the Youths from Multicultural Family. :Focused on Multicultural Experience and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2013.
- [14] K. E. Ko, "The Applicability of Contact Theory in Elementary Schools with Multicultural Environment". Vol. 25, No. 0, pp. 255-274, 2013.
- [15] J. F. Dovidio, A. Eller, M. Hewstone, "Improving intergroup relations through direct, extended and other forms of indirect contact",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Vol. 14, No. 2, pp. 147-160, 2011.
- [16] I. S. Kim, "A Study on the psychosocial variables to influence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s dissertation, Kyungil university, 2016.
- [17] S. Y. Kim, "The Impact of Self Efficacy and Multi Culture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Social Welfare on Acceptance of Multi Culture".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Vol. 9, No. 2, pp. 201-229, 2016.
- [18] M. S. Choi, Y. H. Cho, "An Analysis of Differences and Effect Factors i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between Teachers and Adolescents". *Andragogy Today*, Vol. 17, No. 4, pp. 1-31, 2014.
- [19] M. S. Lee, Y. M. Park, "Cultural Competency by Multicultural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2, pp. 657-665, 2016.
- [20] Y. K. Hyun, "The Influence of Multicultural Contact Experiences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Interest".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2016.
- [21] J. Y. Lee, "A Study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doctor's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3.
- [22] I. S. Chang, H. J. Lee, "A Study on Factors to Influence Multicultural Awaren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Vol. 3, No. 1, pp. 55-87, 2010.
- [23] Y. O. Lee, D. H. Chang, "The Factors Affecting Librarian's Multicultural Acceptan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47, No. 4, pp. 241-263, 2016.
- [24] I. S. Lee, J. Y. Cho, "A Study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Social distanc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ulticultural Health*, Vol. 5, No. 1, pp. 1-9, 2015.
- [25] J. M. Ward, "The relationship of preservice teachers' cross-cultural experiences with their beliefs about teaching divers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ansas Stateu University, 1996.
- [26] M. S. Min, S. S. Ahn, Y. S. Kim, B. Y. Son, M. J. Lee, "Study on Adolescent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Research report 2012-51". *Korea Women 's Policy Institute*, Report No.: 11-1383000-000368-01, p. 169, 2012.
- [27]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pp. 1173-1182, 1986.
- [28] K. H. Kang, C. H. Woo, D. H. Chae, "Factors Affecting the Social Distance between Minority Groups and Nursing Cade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0, No. 5, pp. 505-513, 2014.
- [29] L. Hunter, M. J. Elias, "Interracial friendships, multicultural sensitivity, and social competence: How are they related?".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0, No. 4, pp. 551-573, 1999.

- [30] M. J. Chae, J. I. Kim, J. H. Lee, "Effects of a Multicultural Course on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1, No. 3, pp. 373-381, 2015.

노 윤 구(Noh, Yoon Goo)

[정회원]



- 1989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14년 8월: 경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석박통합과정(박사)
- 2015년9월 ~ 현재 : 국립 창원대학교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여성건강, 간호교육, 간호윤리
- E-Mail : ygnoh@hanmail.net

이 외 선(Lee, Oi Sun)

[정회원]



- 1992년 2월 : 경상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01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4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감성지능, 간호교육, 성인간호
- E-Mail : leeosun@daum.net